

# 10월부터 무안-베트남 나트랑 국제선 운항

### 전남도, 베트남 퍼시픽항공과 협약 코로나19 이후 첫 국제 정기노선 중국·일본 등 노선 다변화 속도

오는 10월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나트랑 정기노선이 운항을 시작한다. 코로나 이후 첫 국제 정기선으로, 전남도는 향후 중국, 일본 등 노선을 다변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도는 2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무안군, 베트남 퍼시픽항공, 한국공항공사와 '무안-베트남 나트랑 간 국제 정기노선 취항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안군수, 응웬 당 끄영 퍼시픽항공 부사장, 신용구 한국공항공사 글로벌사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나트랑 간 안정적 항공 운항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전남 관광 발전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무안-나트랑 노선은 코로나 이후 전세기만 취

항했으나, 이날 협약을 통해 정기노선으로 전환, 10월 말부터 주 2회(화·토 출발) 운항에 나선다. 퍼시픽항공은 국영 베트남항공의 자회사다. 1991년 설립돼 올해 무안국제공항과 나트랑, 달랏, 다낭, 호치민 등 베트남 주요 노선을 171항차 운항했다. 전남도는 나트랑 노선의 성공적 운항을 계기로 퍼시픽항공과 정기노선 추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퍼시픽항공 정기노선 취항을 통해 두 나라 국민들이 전남과 베트남을 편리하게 오가면서 문화를 교류하고 더욱 가까워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선 유치를 계기로 현재 논의 중인 중국, 일본 등 국제 정기선 운항이 속도를 내 무안국제공항 조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산 무안군수는 "항공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해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대표 관문공항으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항공사의 코로나 이후 무안국제공항 첫

정기노선 운항은 그동안 전남도가 현지 관광설명회,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도입 등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로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무안국제공항 국제 정기선 유치를 위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나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도입을 건의, 올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으로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 관광객은 15일 동안 비자 없이 전남, 전북, 광주, 제주를 여행할 수 있다. 지난 2월에는 김영록 지사가 직접 베트남 호치민과 나트랑을 방문해 전세기 유치 업무협약을 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전남의 다양한 여행상품 판촉 활동을 펼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관광객 1200여 명이 전세기로 전남을 찾았으며, 추석 연휴와 단풍철에 대규모 베트남 관광객 입국이 기대되며 이번 정기선 취항으로 관광객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21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베트남 퍼시픽 항공과 무안국제공항 정기노선 개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두 번째부터) 김산 무안군수, 김영록 전남도지사, 퍼시픽항공 응웬 당 끄영 부사장, 한국공항공사 신용구 글로벌사업본부장.

## 광주시, 문화전당 주변 도로 '걷고싶은 길' 조성한다

### ACC-전남대병원 일방통행로 동구청~조선대 입구 도로 등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변 좁은 도로를 넓히는 확장 공사가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대상 도로는 ACC-전남대병원 일방통행로와 동구청-조선대 입구 도로 등으로, '걷고 싶은 길'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ACC는 총연장 215

m의 광주 동구 광산길(ACC-전남대병원 일방통행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다.

기존 폭 12m의 2차로 일방통행 구간을 폭 25m의 왕복 5차로로 넓힌다.

시는 애초 전남대병원 방향은 3차로로, ACC 방향은 2차로로 도로를 늘리고 양쪽에 인도를 각각 5m, 3m 폭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차로를 왕복 3차로로 축소하고 인도를 5m 더 늘려 2개 차로 크기의 보행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총 317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0년 4월 설계용역에 착수한 뒤 보상 절차를 거쳐

2021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2024년 3월 마무리를 목표로 현재 도로면 건물 20층 중 18층의 철거를 마쳤다.

시는 또 동구청에서 조선대 입구 방향 도로(총연장 375m) 확장 공사를 하면서도 보행로 폭을 기존보다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 폭 20m인 왕복 4차선 도로를 폭 30m의 왕복 5차로(동구청 방향 3차로·조선대 방향 2차로)로 늘리고 비좁았던 양쪽 인도도 7~9m, 3~4m로 넓힐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100만원 소액대출 20대 4명 중 1명 이자 미납

### 전체 연령대 2배...청년 빚 경고음

한도 100만원인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 4명 중 1명은 이자를 제때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불안과 생활비 부담 등이 겹치면서 월 몇 천원 가량의 이자조차도 미납한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1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만 19세 포함)의 이자 미납률은 24.5%다.

대출 건 중 이자 납입일이 도래한 8931건 중 정상 납입이 6581건, 미납이 2190건, 완체(모두 상환)가 160건이었다.

20대 이자 미납률은 전 연령 중 가장 높은 뿐 아니라,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 미납률(14.1%) 대비 2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자를 제때 갚는 비율이 높았다. 같은 기간 60대와 70대 이상 대출자들의 이자 미납률은 각각 7.4%, 7.2%로 나타났다. 50대는 9.7%, 40대는 13.5%, 30대는 17.7%로 집계됐다.

소액생계비 평균 대출 금액인 61만원에 대출 금리(연 15.9%)를 적용해보면 첫 달 이자는 8000원 가량이다. 제도권 금융은 물론 정책 서민 금융의 문턱마저 넘을 수 없어 소액생계비를 빌린 20대 청년 상당수가 한 달 1만원도 안 되는 이자를 내지 못하며 '빚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전통-현대 공존 '한국수목' 인도에 빛을 발하다

### 전남도, 한국 수목 해외전시...31일부터 인도 한국문화원 갤러리 박문수 '신명' 등...G20 정상회의, 한국-인도 수교 50주년 축하

전남도가 '한국 수목 해외전시'를 인도 한국문화원 갤러리에서 오는 31일부터 10월 13일까지 44일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주인도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한국 수목과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를 해외 미술계에 홍보하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18회 G20 정상회의와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기획했다.

전시 주제는 '한국수목, 빛을 발하다(Korean Ink Wash Paintings, Emitting the Light)'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 수목의 빛나는 가치를 담았다.

먹의 짙고-얇음, 선, 여백으로만 표현되는 전통적인 수목 기법부터 채색을 더해 현대적 조형미까지 표현한 광주-전남 대표작가 25인의 작품이 인도 관람객에게 흥미롭고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설 전망이다.

전시 작품 가운데 이선복 작가의 '어디 가냐 묻지 말고 언제 오냐 묻지마라'는 해석적 표정과 민화풍의 호랭이 등 위에 전라도 어머니 산인 무등산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인간 삶의 안녕과 풍요로움, 나쁜 기운을 몰라치고 좋은 일을 끌어들이는 벼사의 의미를 담았다.

박문수 작가의 '신명'은 마을에서 단체로 행하

는 민속신앙이 깃든 군무로 국민의 안녕과 질서, 기원을 담고 있다. 풍물놀이 중 가장 흥겨운 난장 부분을 표현했다.

박우욱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게 그려낸 감각적 수목 작품을 인도에서 선보이게 됐다"며 "올해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남도영화제, 전국체전 등 다양한 초대형 행사가 펼쳐지는 만큼 많은 외국인이 가장 한국적인 맛을 간직한 전남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정부, 96개 공공기관 민원콜센터 '110'으로 통합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소관 기관에 상관없이 '110'에서 정부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통합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민원 상담을 위한 개별 콜센터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 예산 낭비와 비효율 문제가 제기돼 왔다.

상담 과정에서 소관 기관으로 전화를 넘기는 경우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전화가 끊기거나 상담 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4월부터 국내 96개 공공기관의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는 '법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1단계 사업에서는 정부부처 공

동 활용 기본 모델을 구축하고 내년 2단계 사업에서는 17개 기관이 먼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96개 공공기관 콜센터의 통합이 진행된다.

권익위는 기관별로 독립된 서버를 운영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상담사와 재상담이 필요할 때 최초 상담 정보가 공유돼 상담 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적절한 상담을 해주는 인공지능(AI) 상담사 기능도 탑재된다. 권익위는 아울러 통합콜센터 상담 내용에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국민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정부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월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울포해수욕장근)**

- 경관 수려, 다세대, 숙박시설·펜션 등 적합
- 445평과 210평, 도로 전용, 평당 100만원

**무안군 운남면 내리 3,940㎡ (1,191평)**

- 공시가 45백 527천원 전원생활적합. 1억1,900만원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점 땅 4,650㎡ (1,406평)**

-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동면 장동리 (776평)**

- 조용한 생활적합. 7,2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5,500 (평당 10,778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 조직변경공고

당 회사는 2023년 08월 21일 임시사원총회에서 사원 전원이 일치되어 주식회사 다미종합건설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건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당 회사에 이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갑)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둔장길 11-1  
대표이사 문정의

---

### 문화재수리업양도양수공고

남도건설(주) 대표이사이자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 양도양수공고와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아래 기한 내에 이해관계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2일  
-다 음-  
1. 양도양수 문화재수리업의 종류 : 보수단장업 (등록번호: 제01-15-1630)  
2.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3.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4.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5.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6.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7.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8.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9.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10.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11.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12.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13.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14.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15.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16.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17.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18.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19.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20.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21.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22.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23.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24.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25.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26.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27.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28.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29.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30.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31.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32.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33.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34.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35.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36.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37.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38.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39.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40.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41.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42.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43.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44.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45.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46.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47.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48.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49.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50.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51.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52.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53.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54.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55.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56.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57.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58.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59.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60.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61.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62.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63.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64.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65.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66.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67.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68.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69.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70.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71.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72.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73.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74.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75.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76.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77.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78.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79.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80.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81.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82.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83.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84.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85.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86.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87.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88.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89.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90.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91.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92.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93.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94.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95.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96.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97.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98.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99.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100. 양도양수인 유한회사 다미종합건설 또는 양수인사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